

나주시, '나주읍성 당산제 복원 학술대회' 개최

복합문화공간 나주정미소에서 전통 제의 문화의 역사, 지역적 가치 재조명

나주읍성 당산제의 역사적 의미와 지역적 정체성을 학술적으로 재조명하고 전통 제의문화의 현대적 계승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의 장이 열렸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지난 26일 복합문화공간 나주정미소에서 '나주읍성 당산제 복원을 위한 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는 나주읍성 당산제를 중심으로 지역 공동체의 제의 문화가 지닌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향후 문화자원으로서의 활용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행사는 과거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이어졌던 전통 제의 문화를 오늘날의 시점에서 재해석하고 학문적 논의를 통해 복원과 계승의 방향성을 모색하는 자리로 운영됐다.

학술대회는 총 3개의 주제 발표와 종합

토론으로 구성됐는데 첫 번째 발표에서 나경수 전남대학교 명예교수는 '광주·전남 동계(당산제)의 형태와 특징'을 주제로 지역별 당산제의 구조와 전승 양상을 살폈다.

이어 이윤선 진도학회 회장은 '기후 위기 시대 당산나무와 숲의 역할'을 통해 자연환경과 전통 제의 문화의 관계를 인문학적으로 조명했다.

마지막 발표에서는 윤종호 나주시립극단 예술감독이 '나주읍성 당산제 고찰'을 주제로 읍성 공간에서 이루어진 제의의 특징과 지역적 맥락을 분석했다.

종합토론은 박종오 남도민속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됐으며 나승만 목포대학교 명예교수, 정명철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연구사, 윤여정 나주문화원 원장이 참여해 당산제의 학술적 가치와 지역문화 속 의미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나주시는 이번 학술대회 성과를 바탕으로 나주읍성 당산제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정리하고 향후 문화콘텐츠 개발과 지역 정체성 회복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해 나갈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이번 학술대회는 나주읍성이 지닌 전통 제의 문화의 가치를 학문적으로 정리하고 시민과 공유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역사와 문화를 발굴해 문화자원으로 계승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이명열 기자



완도군, 도 주관 산림행정 종합 평가 '최우수상' 수상 산림 보호·탄소중립 기여 등 산림 정책 전반 높이 평가 받아

완도군이 전라남도 주관 '2025년 산림행정 종합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평가는 도내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산림자원 육성, 산림 휴양, 산림 보전, 공동 분야를 포함한 18개 지표를 통해 산림 정책 전반의 추진 실적과 성과를 심사하는 제도이다.

완도군은 산림자원 육성과 산림 휴양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인정받았으며, 특히 산불 제로화 달성, 조림·숲가꾸기 추진에서 도내 최고 수준의 평가를 받았다.

산림 보전 분야에서는 조림·숲가꾸기 확대 및 임도 정비를 통한 산림 관리와 산불·산사태 예방 및 병해충 방제를 통해 재해 대응력 강화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성과는 탄소 중립 실현에도 기여한

것으로 평가됐다.

산림 휴양 분야에서는 산림치유 단지 조성 및 목재 문화체험장 조성, 도시 숲 확충, 산림 복지 기능 강화 등으로 군민의 생활 속 여가·건강 자원을 확대한 점이 주목받았다.

박재산 산림휴양과장은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산림 정책을 통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탄소 중립 실현에 더욱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완도군은 산림치유·휴양 선도 도시로서 위상을 강화하고자 내년에는 편백숲 산림공원 인근 산림치유

단지에 숲속 야영장을 개장할 예정이며, 해변공원 리모델링과 안도호랑가시 축제 개최, 국립완도대나무목원 조성 사업 착공 등 주요 산림 휴양 사업을 추진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완도/장선우 기자

보성군,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 우수 군 선정

지방공공요금 동결 및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으로 높은 평가

보성군이 행정안전부 주관 2025년 지방물가 안정관리 평가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특별교부세 2천만원과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이번 평가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공공요금 동결, 착한가격요금 활성화 노력, 바가지요금 근절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매년 우수사례를 발굴·전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군은 올해 지방공공요금을 동결하여 군민과 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했고, 착한

가격요금 물품 및 전기요금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소상공인 경영 안정화에 기여하였다. 또한, 물가안정 및 바가지요금 근절을 위한 캠페인 및 각종 홍보활동이 수상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군이 한 해 동안 물가동향 관리와 착한가격요금 지원 등 물가안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운기 기자



화순군, 2026년 원예특작분야 사업 접수

민원인 편의 증진, 민생 안정 위한 27개 사업 통합 접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6년 원예특작분야 지원사업' 중 27개 사업(총사업비 33억 3,400만 원)을 오는 1월 23일까지 일괄 접수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자는 관내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원예·특용작물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및 단체이며, 사업별 자격요건을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원예특작분야 사업은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 ▲시설부분 지원사업 ▲농자재 지원사업 등 총 3개 분야로 구성됐다.

지역특화작목 육성사업은 화순군 특화작목인 복숭아, 포도, 블루베리, 콩, 토마토 재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품종 갱신, 부대시설, 방제약품, 양액 등을 지원한다.

시설부분 지원사업은 ▲중소농 원예·특용작물 생산기반 구축 ▲소규모 시설 원예 농가 현대화 지원 ▲ICT-에너지절

감시설 지원사업 등으로, 하우스 신축 및 개·보수, 시설 설비, 재해 예방시설 등을 지원한다.

농자재 지원사업에는 ▲시설원예(전라품목) 양액 지원사업 ▲한약재 유통 약용작물 육성 지원사업 등이 포함되며, 비료(질산칼슘), 양액, 작물보호제, 생분해성 멀칭필름 등을 지원한다.

최홍남 농업정책과장은 "2026년도 원예특작분야 사업은 올해 12월 군수와의 소통 간담회에서 접수된 건의사항을 반영해 개정된 내용으로 추진했다"라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요구 중 현재 추진 사업에 미반영된 부분은 별도 수요조사를 실시해 필요성을 검토하고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화순/김종환 기자

영광군은 여성농업인의 농작업 질환 예방과 건강복지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사업' 사전 신청을 오는 1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검진대상자는 1946. 1. 1.~1975. 12. 31. 기간 중 짝수년도에 출생한 51~80세 여성농업인이며, 농작업으로 인해

영광군, 2026년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전 신청

검진비 전액 지원, 1월 1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

발생하기 쉬운 근골격계, 심혈관계, 골절·손상위험도, 폐기능, 농약중독 등 5개 영역, 10개 항목에 대하여 2년 주기로 검진을 실시한다.

군은 여성농업인 376명을 대상으로 검진비 전액을 지원하며, 농식품부의 검진 의료기관 선정 이후 오는 3월부터 검진을 개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부터 검진 대상 연령이 80세까지로 확대되어 보다 많은 여성농업인이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라면서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과 병행 신청하여 복지 혜택을 톡톡히 누리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광/이현식 기자

장흥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 시행

장흥군이 내년 1월부터 '아기 주민등록증' 무료 발급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아기 주민등록증은 소중한 아기의 출생을 기념하고 출산 장려를 위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다.

실제 주민등록증과 같은 크기로 제작되며, 앞면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가 기재된다.

뒷면에는 태명, 태어난 시간, 몸무게, 부모의 소망 등이 담긴 아기의 소중한 첫 순간이 특별하게 기록될 예정이다.

발급 대상은 2025년 1월 1일 이후 장흥군에서 출생한 아기이며, 출생 후 1년 이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발급 신청서를 작성하고 사진과 인상을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아기 주민등록증을 통해 아이의 출생을 기념하며, 가족들에게 따뜻한 추억이 되길 바란다"

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출산 장려 정책을 마련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흥군 제공

광전매일신문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이 작품은 국민 김라온님이 제안한 공익광고입니다. - 2024 정부광고 크리에이티브 페스티벌 수상작

독서로 찾는 강력하고 건강한 도파민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일지도
최대한 담백하게 사는 것
내가 창조하는 삶을 살아갈 것
지금처럼 버티다 보면 이 순간이
힘들수록 자신을 사랑할 것
헛갈 같은
나의 가치를 내가 찾을 것
특별함을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누구보다
예쁘다고 다 끌리는 게 아니고
마음먹기에 그가 얼마나 따뜻한 사람이었는지 느껴진다.
우리는 몇 장짜리 책일까
기억스레 생각해
평범함의
정말이다. 공전으로 맞물려
마음이 편해진다
몇 장이나 될까
현재의 미래와 걸러낼 수 없는 것이긴
평범한 것은
고유의 색을 가능 하다.
평범함의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 되면
기회는 위기 속에서 찾아온다는 건
엔 다 잘될 테니까 내가
그 자체만으로도
좋은 거라면
언제나 우연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

서울특별시교육청

독서는 우리의 문해력과 사고력을 키워주는 큰 자산입니다. 책을 통해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고 진정한 '나'를 만듭니다. 소셜 미디어와 숏폼에서 얻은 일시적인 자극 대신, 독서라는 건강하고 긍정적인 자극을 선택해 보세요.



이 공익광고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우수료를 지원받아 실시되었습니다.